

명사구 형성과 속격 표지 '-의'

신 선 경*

1. 들어가기

본 논의는 명사구 형성에 있어서 속격 조사 '-의'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적 특성 및 속격 조사 '-의'의 출현 조건을 밝히고, '-의'를 동반하는 명사구와 그렇지 않은 명사구들의 의미, 통사적 차이 및 이들 명사구를 형성하는 명사들의 의미 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과정은 매우 생산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명사구 형성 과정은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속격 조사 '-의'의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¹⁾ 명사구 구성은 속격 조사 '-의'의 개입 여부에 따라, 속격 조

* 울산대학교 국제한국학교육센터 교수

1) 김기혁(1990)은 명사 수식 구성을 관형격 구성 'NP₁+NP₂'와 명사구 수식 구성 'N₁N₂'으로 구별하고 후자를 관형격 구성 'NP₁+NP₂'에서 조사가 생략된 구성이 아닌 통어적 구성과 합성어의 중간 단계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는 명사구 형태로 정의하였다.

사 '-의'의 존재가 필연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 그리고 속격 조사의 실현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각 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들은 서로에 대하여 특정한 문법적, 의미적 관계를 가지며 명사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의'의 존재는 큰 역할을 한다. 속격 조사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에도 '-의'가 실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²⁾. 이를 통해서 한국어 화자가 명사구 형성에 있어서 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들의 문법적 의미적 관계와 속격 조사 '-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이미 알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들 사이의 관계는 의미적으로 크게 서술 관계와 집합 관계로 양분할 수 있다³⁾. 예를 들어, 1)에서와 같이 후행 명사가 술어성 명사이고 두 명사가 의미적으로 술어와 그의 논항이나 부가어의 관계를 갖는 경우와 2)에서와 같이 명사들이 주술의 관계가 아닌 전체와 부분, 소유 및 친족 관계로 해석되면서 머리 명사에 대해서 명사구 자체가 집합과 그것의 하위 집합이나 집합과 그것의 구성 단위의 관계를 갖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ㄱ. 강의 깊이(강이 깊다) / 한복의 아름다움(한복이 아름답다)

-
- 2)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예를 통해서 '-의'의 의미적 기능을 밝힌 논의는 김명희(1987), 이남순(1988) 김기혁(1990) 참조.
- 3) 최경봉(1995)은 명사구 구성을 명사의 특성에 따라 '논항 관계 구성'과 '집합 관계 구성'으로 나누었다. 논항 관계 구성이란 의미핵이 되는 명사가 서술성을 띠는 명사인 구성으로 이때의 명사구 구성은 의미핵 명사가 선행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 구조로 해석되는 명사구 구성을 말하며 한편 집합 관계 구성은 명사 연결 구성을 이루는 명사가 서술성을 띠지 않는 구성으로 의미핵 명사와 나머지 명사가 집합 관계를 이루는 구성을 말한다. 이는 본고의 서술 관계 구성과 집합 관계 구성에 1:1로 대응되는 동일 의미의 다른 용어로서 본고에서 논항 관계 구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함수자와 논항의 관계는 서술어와 그들의 논항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좀더 포괄적인 용어로서 다른 개념들과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그림 그리기(그림을 그리다) / 케네디 암살(케네디를 암살하다)

2) ㄱ. 알코올의 성분(알코올의 여러 가지 부분 중 하나인 성분)

성분 ⊆ 알코올

/ 알코올 성분(여러 가지 성분 중 하나인 알코올)

알코올 ⊆ 성분

나. 노인의 문제(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문제 ⊆ 노인

/ 노인 문제 (여러 문제 중의 하나인 노인 문제)

노인 문제 ⊆ 문제

ㄷ. 큰아버지의 집(큰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집 ⊆ 큰아버지

/ 큰아버지 집 : 큰아버지 대 큰아버지 집 ⊆ 집

ㄹ. 우리의 아버지(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 ⊆ 우리

/ 우리 아버지(나의 아버지)

아버지 ⊆ 나, 우리 아버지 ⊆ 아버지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속격 조사 '-의'의 실현 여부는 명사구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구가 하나의 서술 구조로 해석되는 경우, 선행 명사가 술어 명사의 외부 논항 즉 주격 성분으로 해석되는 1 ㄱ)의 예들에서는 속격 조사 '-의'의 출현은 필연적인 반면, 선행 명사가 후행하는 술어 명사에 대하여 내부 논항의 자격, 즉 대격 성분으로 해석되는 1 나)의 경우 속격 조사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한편, 술어 명사를 갖지 않는 2)의 예들에서도 속격 조사 '-의'의 실현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들 명사구 사이의 구조적 긴밀성 즉 문장 구조 내에서 서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적 긴밀성은 두 명사 사이의 의미 관계 즉 개념 구조와 관련을 갖는데 이들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이들 사이의 계층적 관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의’의 실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조적 긴밀성과 의미 관계의 연관성은 각 명사구의 어휘 개념 구조를 살피고 어휘 개념 구조가 구체적으로 명사구의 실제적인 구조로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살핌으로써 좀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2.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국어에서 조사 생략은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주격, 목적격, 속격 등 소위 구조적 조사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격조사는 체언만으로도 격 관계가 분명히 나타날 때 구어체에서 흔히 생략된다.

속격은 명사와 명사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격으로 일반적인 격조사 생략 현상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속격 조사의 경우 문장이 구어체나 문어체나와는 상관없이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뚜렷이 구별되고 더 나아가서 ‘-의’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와 필수적인 경우가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 생략이 수의적인 경우라 할 지라도 속격 조사의 실현 여부에 따라 명사구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므로 속격 조사의 경우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의 생략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⁴⁾

4) 이남순(1988)에서는 속격 구성을 주격이나 목적격의 경우와 같이 구조적으로 보고 속격 조사가 표면에 실현되는 경우와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동일한 통사 절차로 가정하여 한정 관계의 차이에 따라 ‘-의’가 표면에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격으로 격조사 없이 실현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의 실현은 항상 수의적인 성격을 띠는 절차가 아니며 ‘-의’의 실현은 경우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불허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이를 주격이나 목적격과 동일한 격 현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사 '-의'에 대한 명칭은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매김 자리 토씨나 관형격 조사로⁵⁾, 의미를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격 혹은 속격 조사 등으로 달리 지칭된다. '-의'는 그것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느냐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명사와 명사가 연결(coordinating)하는 통사적 절차⁶⁾에서 이들 명사와 명사의 수식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법 형태소이며 이때 '-의'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수식 관계와 문장 내부에서 명사구가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사간의 결합력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⁷⁾. 여기에서 결합력이란 명사구 내부의 명사들이 구에서 단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단위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문제로 단어화의 정도를 나타낸다.⁸⁾ 명사구 내부의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미적, 문법적 결합 정도에 따라 '-의'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수의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들 사이의 결합력이 강하여 명사구가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될 때, '-의'는 실현되지 않는 반면 명사들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여 명사구 구성의 단위성이 약할 때, 즉 이들 구성이 형태적 결합의 성격보다는 통사적 결합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경우 '-의'의 실현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들 사이의 형태적, 의미적 결합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한편, 서정수(1994:795-796)는 한정사(보조사)와 '-의'의 결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는 주격이나 대격과 같은 기능 표지들과는 달리 고유한 의미를 가지므로 임의로 생략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 5) 서정수(1994)는 '-의'를 체인 관형화소로 분류하고 있다.
- 6) 이남순(1988:72)은 형태론적 절차인 합성(compounding)과 구별하여 속격과 관련된 구성을 체인이 연이어 나타나 하나의 구성을 이루는 통사적 현상인 연결(coordinat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 7) 명사구 내부의 명사 간의 의미적, 문법적 결합력에 관한 것은 김광해(1981), Roeper & Siegel(1978), Selkirk(1982), Baker(1988) 등 참조.
- 8) 김기혁(1990)은 명사 수식 구성을 'NP1 NP2'와는 구별되는 'N1 N2'의 구성으로 상정하고 이를 명사구와 명사구의 결합인 구 구성과 구별되는 합성 명사 즉 단어로 이행하기 이전의 단계로 다른 명사구 구성과 구별하여 규정할 바 있다.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명사 사이의 집합 관계 즉 하나의 집합과 이를 이루는 단위의 관계에 기초한 전체-부분의 관계나 친족 관계, 소유 관계 등의 의미적 관계나 서술구조에서 서술부와 그것의 논항 사이의 논항 관계나 의미역 관계 등 통사 의미적 관계 등이 이러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통사, 의미 관계에 있어서 명사구 내부의 명사들이 서로 위치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서로에 대하여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명사구 내부에 '-의'의 실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아래와 같은 비유적 용법의 경우 이들 구문에서의 '-의'의 출현은 필연적인데 비유 표현의 경우 두 명사가 의미적으로 필연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가. 평화의 종소리 / *평화 종소리
- 나. 눈물의 씨앗 / *눈물 씨앗
- 다. 사랑의 묘약 / *사랑 묘약

이는 '-의' 출현이 수의적이거나 혹은 '-의'의 출현이 불허되는 경향을 보이는 아래의 예들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아래의 예들에서는 명사구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이 위의 예들에 비해 훨씬 긴밀함을 알 수 있다.

- 4) 가. 교회의 종소리 / 교회 종소리
- 나. 옥수수의 씨앗 / 옥수수 씨앗
- 다. 감기 약 / 기침 약 / 두통 약

즉 '교회'가 갖는 의미의 집합들 속에서 '종소리'라는 개념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종소리'라는 어휘의 의미 집합과 '교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의미적 관련성은 '옥수수'와 '씨앗'이나 질병의 이름과 '약'이라는 명사의 의미 집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대조되는 3)과 4)의 두 예를 통해 '-의'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명사들이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룰 때 이들 사이의 수식 관계를 좀더 긴밀하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명사구와 명사구의 결합에 있어서 '-의' 문법적 기능은 조사를 동반하는 명사구와 명사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의 기능은 단순히 의미적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 실현되는 명사구들 사이의 통사적 관련성도 입증하는 기능을 한다.

- 5) 가. 아이들은 저마다의 솜씨를 자랑하였다.
 가'. 아이들은 저마다 솜씨를 자랑하였다.
 나. 여기까지의 비용을 내가 부담하기로 하겠다.
 나'. 여기까지 비용을 내가 부담하기로 하겠다.
 다. 서울까지의 거리를 재보지 않았다.
 다'. 서울까지 거리를 재보지 않았다.

위의 (5가.나.다) 예에서 '저마다, 여기까지, 서울까지' 등의 명사구는 조사를 동반함으로써 더 이상 형태론적 단위인 단어가 아닌 통사적 단위인 구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들은 조사의 결합을 통해 문장 내에서 (5가' 나'다')에서와 같이 부사어로 해석될 가능성도 갖게 된다. 이때 이들 명사구에 '-의'가 결합됨으로써 이들 명사구들이 후행 명사구와 수식 관계를 갖는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의'는 두 개의 명사구를 연결함으로써 두 개의 명사구가 별개의 문법 단위가 아닌 하나의 문법 단위임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아래 6)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명사구가 연결될 때, 혹은 각 명사구들이 수식구를 가짐으로써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들 사이의 관련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들 간의 문법적, 의미적 관련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의'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 6) 가. 철수의 아내의 동생의 친구

나. 고생하는 아내의 거친 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문장에 실현되는 명사와 명사가 의미적, 혹은 문법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도록 돕는 문법 형태소로서의 속격 조사 '-의'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는 속격 조사 '-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와 같은 '-의' 기능이 구체적인 예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명사구 내부의 명사, 또는 명사구들 사이의 의미적, 통사적 관련성의 정도는 어떠한 의미적 혹은 통사적 요인들에 의하여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 '-의' 실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한다.

3. 명사구의 유형과 각 명사구의 어휘 의미 구조

속격 조사 '-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명사구의 유형은 '-의'의 실현이 불허되는 경우와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 그리고 '-의'가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의'가 실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의'의 삽입 여부에 따라 명사구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명사구는 결국 '-의'가 실현되는 명사구와 그렇지 않은 명사구로 이분된다고 할 수 있다.

3-1. '-의'의 실현이 불허되는 경우

속격 조사 '-의' 없이 명사와 명사의 결합만으로 명사구를 이루는 구성은 구에서 단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와 단어의 중간 상태에 있는 것으

로 대부분의 경우 구와 단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⁹⁾ 특히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들 간의 통사적 의미적 조건들을 살펴보면 합성어의 형성 조건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의 실현이 불허되는 예들은 먼저 후행 명사의 서술성 여부에 따라 서술 관계와 집합 관계 유형으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명사간의 구체적인 의미 관계에 따라 다시 세분될 수 있다. 먼저 명사구 내부의 명사들이 서술 관계를 갖는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서술 관계를 갖는 예들

- 가. 그림 그리기/*그림의 그리기, 케네디 암살/*케네디의 암살
- 나. 숯불 구이/*숯불의 구이, 맥반석 구이 /*맥반석의 구이
- 컴퓨터 세탁 /*컴퓨터의 세탁, 물 세탁 /*물의 세탁
- 다. 약물 중독/*약물의 중독, 알코올 중독/*알코올의 중독
- 가스 중독 /*가스의 중독, 서울 도착 /*서울의 도착.
- 달 착륙 /*달의 착륙 (달 착륙 30주년)
- 라. 아침 식사 /*아침의 식사, 저녁 산책/ *저녁의 산책
- 여름 보신/*여름의 보신

서술 관계를 갖는 명사구들은 의미적으로 하나의 서술 구조로 해석되는데 후행 명사와 선행 명사는 서술어와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의미역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7)의 예들에 나타난 명사간의 의미 관계를 후행 명사의 의미와 동일한 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 구조로 가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김기혁(1990:84)은 이러한 구성을 구 구성인 'NP1 NP2'와 구별하여 'N1 N2'로 나타내고 이 구성에서 N1과 N2 사이에 관형어가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 구성 전체가 수식을 받는 수식 범위를 된다는 것 그리고 후행 명사의 대응화가 불가능하는 것 등에서는 합성 명사와 유사하나 이들 구성이 생산적이라는 점과 선행 명사의 대응화는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는 합성 명사와 구별되는 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8) 가. 그림 그리기

[_{VP} Agent, [_V'Theme 그리다]] (그림=Theme)

[_{NP} ∅ [_N' 그림 [_N그리기]]]

케네디 암살

[_{VP} Agent, [_V'Theme 암살하다]] (케네디=Theme)

[_{NP} ∅ [_N' 케네디 [_N암살]]]

나. 약물 중독

[_{VP} Theme, [_V'Goal 중독되다]] (약물=Goal)

[_{NP} ∅ [_N' 약물[_N 중독]]]

서울 도착

[_{VP} Theme, [_V'Goal 도착하다]] (서울=Goal)

[_{NP} ∅ [_N' 서울 [_N도착]]]

달 착륙

[_{VP} Theme, [_V'Goal 착륙하다]] (달=Goal)

[_{NP} ∅ [_N' 달 [_N착륙]]]

나' *청소년 중독

[_{VP} Theme, [_V'Goal 중독되다]] (중독=Theme)

[_{NP} 청소년 [_N' [_N중독]]]

다. 슷불 구이

[_{VP} Agent, [_V'Theme, (Instrument), 굽다]] (स्थ्य불=Instrument)

[_{NP} ∅ [_N' ∅ [स्थ्य불 [_N구이]]]

컴퓨터 세탁

[_{VP} Agent, [_V'Theme, (Instrument) 세탁하다]] (स्थ्य퓨터=Instrument)

[_{NP} ∅ [_N' ∅ [स्थ्य퓨터 [_N세탁]]]

라. 아침 식사

[_{VP} Agent, [_V'(Loctime), 식사하다]] (아침 = time)

[_{NP} ∅ [_N' 아침 [_N식사]]]

여름 보신 : [_{VP} Theme, [_V'(Loctime), 보신하다]] (여름 = time)

[_{NP} ∅ [_N' 여름 [_N보신]]]

위의 예에서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대해서 갖는 의미 관계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8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서술어와 그것의 대상역(theme)의 관계이며 두번째는, 8나)와 같은 서술어와 도구 및 방법의 의미역 관계이고 세 번째는 8다)의 서술어와 그것의 도달점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9라)의 예에서와 같이 서술어와 그것의 시간적 처소의 관계를 갖는 경우이다. 위의 8가)와 8나)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대상역이라고 할지라도 8가)의 경우처럼 대상역이 동사구의 내부 논항으로 실현될 경우 이 명사는 명사구에서 '-의'의 도움 없이 후행 명사와 수식 관계를 이루는 선행 명사로 실현되는 반면 8나)의 경우에서와 같이 외부 논항으로 실현될 경우 '-의'를 동반하지 않고는 후행 명사와 수식 관계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사구의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이와 같이 함수자와 논항의 관계에 의해 설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즉 8)의 예에서 8가, 나)의 경우, 선행 명사들은 서술 구조에서 서술어의 내부 논항으로 서술어에 대하여 필수 성분이 되지만¹⁰⁾ 8다. 라)의 경우, 선행 명사들은 도구나 처소(시간적 처소)의 의미역으로 서술 구조에서 필수 논항의 성격보다는 부가어적 성격을 띤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행 하는 서술성 명사들과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속격 '-의'의 도움 없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서술 구조로의 해석이 가능한 명사구 구성에서 후행 명사에 대하여 선행 명사가 갖는 관계는 서술어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의미역을 갖느냐 하는 문제나 그것

10) 9나)의 경우 선행 명사들은 서술 구조에서 도달점의 의미역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이들은 의미 구조 안에서 서술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논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1) 9다)의 경우 도구의 의미역뿐만 아니라 대상역의 명사구도 서술성 명사의 선행 성분이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물 세탁' '손 세탁' '기계 세탁'뿐만 아니라 '옷 세탁'이나 '카펫 세탁' 그리고 '돈 세탁'과 같은 명사구 구성도 가능하다.

[Agent (theme(옷/카펫/돈) Instrument(물/손 /기계) 세탁하다)]

이 필수적 성분이나 수의적 성분이나 하는 문제보다는 두 명사구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 하는 국부성(locality)¹²⁾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의 도식들을 통해 살펴보면 선행 명사와 대응되는 명사들과 후행 명사와 대응되는 서술어는 모두 동일한 교점 즉 V'의 관할을 받는다. 이들 명사구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술성 명사를 후행 명사로 갖는 명사구의 경우 서술 구조에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는 동일 교점의 관할을 받는 성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후행 명사가 서술성 명사이지만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위의 8)의 예들에서 보이는 서술어와 그것의 의미역의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 예들도 존재한다.

- 9) 가. 대량 생산 : [생산이 대량이다]
 신속 배달 : [배달이 신속하다]
 후속 조치 : [조치가 후속되다]

위의 9)의 예는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의미역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과정의 속성(attribute)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후행 명사가 서술성 명사라고 하더라도 서술 관계가 아닌 집합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부류로 분류된다.

속격 조사 '-의'의 실현을 불허하는 집합 관계 명사구의 목록과 이들 명사구 내부의 명사들 간의 의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국부성이란 문법 규칙이나 원리가 엄격히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성질을 말하며 국부성 조건이란 이러한 영역을 규정해 주는 조건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영역을 규정하는 모든 조건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Koster(1978)와 Culiver & Wilkins(1984)가 제안하는 국부성 조건을 지칭하기도 한다.

10) 집합 관계를 갖는 예들

가. 지시적 등가적 관계 (A=B)

대학생 보이스카웃 /*대학생의 보이스카웃

여대생 접대부/*여대생의 접대부

내 친구 영화/ *내 친구의 영화

내 고향 서울/*내 고향의 서울

알코올 성분/*알코올의 성분¹³⁾

가'. 보이스카웃 대학생, 접대부 여대생, 영화 내 친구

서울 내 고향

나. 내용과 대상의 관계 (A에 대한 B)

겨울 단상 /*겨울의 단상, 노래 책/*노래의 책

애정 영화/*애정의 영화, 뇌물 리스트 /*뇌물의 리스트

다. 과정과 배경 관계 (A를 하기 위한 B)

난방 방법 / *난방의 방법, 연습 장소/*연습의 장소

습작 시절/*습작의 시절

라. 사건과 장소의 관계 (A가 일어난 혹은 생긴 B)

장마 전선 /*장마의 전선, 한랭 전선 /*한랭의 전선

침수 지역/*침수의 지역, 피해 지역/*피해의 지역

마. 재료와 대상의 관계 (A로 된 B)

가죽 구두 /*가죽의 구두, 나무 책상/*나무의 책상

종이 인형/*종이의 인형

물 바다/*물의 바다, 불 바다/*불의 바다

기름 바다/*기름의 바다

바. 시간과 사건¹⁴⁾의 관계 (A에 진행되는 B)

13) '알코올 성분'의 경우 '알코올의 성분'이라는 명사구의 형성이 가능하여 얼핏 보기에는 '-의' 실현이 수의적인 명사구의 예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다른 명사구들이 기본 의미를 공유하는 반면 이들 명사구의 경우 의미 해석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들은 별개의 명사구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4) 일반적으로 사건(event)란 과정(process)과 상태(state)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는

새벽 종소리/*새벽의 종소리, 가을 소나기/*가을의 소나기
 여름 감기/*여름의 감기
 사. 속성과 과정의 관계 (A의 속성을 갖고 행해지는 B)
 대량 생산 /*대량의 생산, 신속 배달/*신속의 배달
 후속 조치/*후속의 조치

먼저 10가)의 지시적 등가적 관계를 갖는 명사구들을 살펴보면 명사구를 이루는 두 명사들은 의미적으로 서로에 대하여 동일 지시적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대학생 보이스카웃’의 경우 ‘보이스카웃=대학생’의 관계를 갖는데 이렇게 등가적 관계를 갖는 명사구들에서는 이들 명사들은 명사구 내부에서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각 명사의 위치 즉 어느 것이 머리 명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의미 차이는 생기지만 10가)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이스카웃 대학생’ 등의 명사구 생성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명사구들의 경우 이러한 자리 바꿈이 불가능한데 이는 ‘*단상 겨울’이나 ‘*방법 난방’, ‘*전선 장마’ ‘*종소리 새벽’ 등의 명사구 생성이 불가능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관계는 대상(object)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content)의 관계이다. 이때 대상을 나타내는 후행 명사는 내용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는 과정(process)과 그것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시간, 장소 등 그것의 배경(background)이 되는 성분의 관계를 보이는 명사구이다. 이때 선행 명사가 나타내는 과정과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성분은 표상(figure)와 배경(ground)의 관계를 갖는다¹⁵⁾. 네 번째 구성은 사건과 그 사

용어이나 여기에서는 하나의 과정과 그것의 결과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15) figure와 ground에 관한 내용은 Langacker(1987:120이하) 참조. 형상과 배경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 자질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언어의 의미 구조나 문법 구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특히 주어나 객어의 관계, 머리 성분과 수식 성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관계를 갖는 구성으로 이들도 세 번째 구성과 같이 선행 명사가 과정이나 상태 등을 가정할 수 있는 명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명사가 세 번째 구성의 그것과 다른 점은 세 번째 구성의 경우 선행 명사들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의 의미가 부각되는 반면 네 번째 구성의 선행 명사들은 사건의 결과적 측면을 많이 갖는 명사들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 명사 간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도 사건이 발생한 시제와는 상관없이 세 번째 구성에서는 'A를 위한 B'라고 하여 사건에 대하여 미완의 의미가 강조되는 반면 네 번째 구성에서는 사건의 완료성이 강조되어 'A가 일어난, 생긴 B'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구성은 대상과 그것을 이루는 재료로 해석되는 구성이다. 이들 구성에서 두 명사가 갖는 의미의 전형성의 정도에 따라 두 명사들은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족 구두'나 '물바다'와 같은 경우는 '구두'와 '바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해석되어 이러한 전형성이 '구두=가족' '바다=물'의 관계로까지 확장되어 '구두 가족'이나 '바다 물'과 같은 명사구의 생성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관계는 10바)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의 의미를 전제로 하는 사건성 명사와 전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 구성이다. 이때 '종소리' '소나기' '감기' 등은 동작성을 갖는 명사는 아니지만 이들 명사의 의미 속에는 '종을 치는 사건'이나 '비가 오는 사건' 그리고 '감기에 걸리는 사건' 등이 함축되어 있고 이러한 사건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10사)의 관계는 과정의 명사와 그 과정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가 결합한 명사구이다. 이때 두 명사 사이의 서술 관계는 10가)의 그것과 유사하나 10가)의 경우는 두 명사가 등가적 관계를 갖는 반면 이들 명사는 대상과 속성의 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명사구를 이루는 두 명사는 10가)의 그것들과는 달리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없으며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가 항상 과정을 나타내는 명사에 선행하는 위치에서만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상의 집합 관계 명사구의 구조는 예 8)에서

처럼 NP를 최대 투사로 하는 서술 관계 명사구의 구조와는 달리 N'를 최대 투사로 하는 아래의 1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 11) 가. [N' 대학생 [N보이스카웃]]
- 나. [N' 겨울 [N단상]]
- 다. [N' 난방 [N 방법]]
- 라. [N' 여름장마 전선 [N보신]]
- 마. [N' 가족 [N구두]]
- 바. [N' 새벽 [N 종소리]]
- 사. [N' 대량 [N 생산]]

3-2.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

앞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의'는 의미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서로 결합력이 적은 두 명사간의 수식 관계를 확정하여 두 명사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즉 구조적으로 동일 투사 범주의 관할 하에 있지 않거나 의미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함축 관계가 매우 미약한 경우 '-의'의 실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의'의 실현이 필연적인 명사구의 경우도 서술 관계를 갖는 예와 집합 관계를 갖는 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서술 관계를 갖는 명사구의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서술 관계를 갖는 예들

- 가. 시계의 정확성/*시계 정확성
- 한복의 아름다움/*한복 아름다움,
- 컴퓨터의 편리함 /*컴퓨터 편리함
- 나. 철수의 오해/*철수 오해
- 영희의 공부/*영희 공부
- 봉사자들의 활동/*봉사자들 활동

위의 예들을 후행 명사를 서술어로 갖는 서술 구조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3) 가. 시계의 정확성

[VP Theme, [V' [V 정확하다]] (시계=Theme)

[NP 시계의 [N' [N 정확성]]

나. 봉사자들의 활동

[VP Agent [V' [V 활동하다]] (봉사자들= agent)

[NP 봉사자들의 [N' [N 활동]]

다. 영화의 공부

[VP Agent [V' \emptyset [V 공부하다]] (영화 = Agent)

[NP 영화의 [N' [N 공부]]

다'. 영어 공부

[VP Agent [V' Theme [V 공부하다]] (영어=Thme)

[NP \emptyset [N' 영어 [N 공부]]

다''. 영화의 영어 공부

[VP Agent [V' Theme [V 공부하다]] (영화=Agent, 영어=Thme)

[NP 영화의 [N' 영어 [N 공부]]

위의 13)의 도식을 살펴보면 선행 명사는 후행 명사들에 대하여 대상역이나 행동주의 의미역을 가지며 이들은 후행 명사와 대응되는 서술어에 대하여 외부 논항의 위치에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명사는 서술어가 관할하는 V'의 영역 안에 위치하지 않고 V' 교점의 상위 교점이며 동사의 최대 투사인 VP의 관할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 이들 서술어들은 내부 논항을 갖지 않는 자동사의 성격을 가지며 '공부하다'와 같이 자,타동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서술어의 경우 13다)와 같이 외부 논항만을 갖는 자동사로 실현되어 '-의'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13다')와 같이 내부 논항의 실현으로 '-의'의 개입 없이 내부 논항과 서술 명사가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 그리고 13다'')와 같이 내부 논항과 외

부 논항이 그리고 서술 명사가 함께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때 외부 논항의 자격을 갖는 명사는 '-의'를 동반하는 반면 내부 논항의 경우는 '-의' 없이 실현된다.

다음으로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들이 집합적 관계를 갖는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집합 관계를 갖는 예

가. 비유적 표현의 예

감격의 우승/*감격 우승, 사랑의 학교/*사랑 학교

사랑의 묘약/*사랑 묘약

행운의 여신/*행운 여신, 어둠의 자식들/*어둠 자식들

나. 고유 명사화 된 명사구의 예

이순신의 거북선 /*이순신 거북선

피타고라스의 정리/*피타고라스 정리

셰익스피어의 햄릿 / 셰익스피어 햄릿

나. 전체와 부분의 예

3분의 1 /*3분 1, 소득의 10% /*소득 10% ,

소리의 파장/*소리 파장, 빛의 속도 /*빛 속도

알코올의 성분 / 알코올 성분

명사들이 집합 관계를 갖는 경우 '-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위의 14)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주로 의미적으로 두 명사가 합축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4가)의 경우와 같이 비유적 표현의 경우 거의 모든 예에서 '-의'가 요구된다. 이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간접적이며 서로에 대한 의미적 관련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비유 관계를 갖는 명사구 외에도 14나)와 같이 고유 명사화된 명사구들의 예가 있다.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가 선행 명사로 실현되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주장된 대상들이 후행 명사가

된다. 이들은 의미적으로는 소유주와 양도 불가능한 소유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명사구들과는 달리 이들 명사구가 나타내는 대상 자체는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것을 나타냄으로써 고유 명사적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각각 전체와 부분의 의미 관계를 가질 때 '-의'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전체와 부분의 의미 관계를 갖는 모든 명사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와 부분의 의미가 주술 관계를 갖게 될 경우 '-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14나)의 마지막 예인 '알코올의 성분'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의'를 동반하지 않는 '알코올 성분'이라는 명사구의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이들 두 명사구는 의미적으로 전혀 다른 해석을 받게 되므로 이들 두 명사구는 '-의' 유무에 따라 대립쌍을 이루는 명사구로 설명하기보다는 서로 별개의 명사구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5)와 6)의 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조사와 결합한 명사구와 명사구의 결합의 경우나 명사가 3개 이상 함께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에도 '-의'의 실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아래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 개 이상 명사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구들의 경우에도 '-의'를 동반하지 않고 쓰이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신문의 머리 기사에 자주 쓰이는 형식으로 외형적으로는 일반 명사구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 15) 가. 박세리 3승 도전
나. 한국 미사일 개발

위의 15)의 예들은 서술성 명사를 가장 오른쪽에 갖는 명사구로 아래의 15' 가,나)의 예에서와 같이 서술 명사의 의미적 주어 즉 외부 논항이 되는 명사에 '-의'가 연결되거나 15' 다)에서와 같이 수식 관계의 명사를 위해 '-

의'가 연결되어야 하는 명사구이므로 14)의 예들이 가능한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15') 가. [박세리의 [3승 도전]]
- 나. [한국의 [미사일 개발]]

그러나 이들 예들은 사실상 속격 조사 '-의'가 15')와 같은 예에서 '-의'의 생략으로 이루어진 명사구라기보다는 아래의 15'')의 예와 같이 주격 조사등의 조사가 생략된 명사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 15'') 가. 박세리(가) 3승(에) 도전(한다)
- 나.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한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의 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사간의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에서와 같이 '-의'의 실현이 필연적이거나 이들이 구가 아닌 문장의 성격을 갖는 경우 15'')의 예에서처럼 조사나 '하다' 동사의 생략이 가능하여 15)와 같은 명사문의 성립이 가능해진다.

한편, '-의'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집합 관계 명사구의 구조는 위의 11)에서 보았던 속격 표지 '-의'를 동반하지 않는 집합 관계 명사구와는 달리 NP를 최대 투사로 갖는 다음의 16)과 같은 형태로 도식화할 수 있다.

- 16) 가. 감격의 우승 : [NP 감격의 [N' [N 우승]]]
- 나. 이순신의 거북선 : [NP 이순신의 [N' [N 거북선]]]
- 다. 소득의 10% : [NP 소득의 [N' [N 10%]]]

3-3.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명사구는 대부분의 경우 명사와 명사들이 집합

관계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생산적이다. 따라서 서술 관계 명사구의 경우, '-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7) 서술 관계의 예들

- 가. 정부의 발표 / 정부 발표, 방송사의 파업 / 방송사 파업
- 나. 사실의 확인 / 사실 확인, 도서관의 휴관 / 도서관 휴관

서술 관계를 갖는 명사구로서 '-의' 실현이 수의적인 예는 위의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예가 비교적 적다. 17가)의 예는 선행 명사들이 후행 명사에 대하여 소위 처격 주어로 해석되는 것들로 서술어에 대하여 처소의 부사어로 혹은 주어로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아래의 18가)와 18나)의 두 가지 의미 구조로 해석된다.

18) 가. 정부의 발표

[_{VP} Locative [_{V'} ∅ [_V 발표하다]]] (정부 = Locative)

[_{NP} 정부의 [_{N'} [_N 발표]]]

나. 정부 발표

[_{V'} ∅ [_V Locative 발표하다]]] (정부 = Locative)

[_{NP} ∅ [_{N'} 정부 [_N 발표]]]

위의 예에서 '정부'가 주어 즉 서술어의 외부 논항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18가)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것이 되는 반면, 18나)의 경우는 동사구 내부의 처격 명사구로 해석됨으로써 서술어와 함께 V' 교점의 관할을 받는 V' 내부의 성분으로 해석되어 '-의'를 동반하지 않는 명사구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17나)의 예는 두 명사가 서술어와 목적어 즉 서술어의 내부 논항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7가)의 예들과 동일 부류로 처리되어 '-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명사구의 한 예외로 처리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확인’이나 ‘휴관’과 같은 명사들의 경우 서술어로 해석될 때 ‘확인하다/ 확인되다’ 또는 ‘휴관하다/ 휴관되다’ 등 타동사와 자동사로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명사구의 서술 구조 해석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명사구 역시 아래의 19가)와 19나)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선행 명사가 서술 구조 내에서 외부 논항으로 해석되느냐 혹은 내부 논항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19가)와 19나)의 예에서와 같이 각각 ‘-의’를 동반하는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로 명사구 구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9) 가. 사실의 확인

[_{VP} Theme [_{V'} ∅ [_V 확인되다]] (사실 = Theme)

[_{NP} 사실의 [_{N'} [_N 확인]]

나. 사실 확인

[_{VP} Agent [_{V'} Theme [_V 확인하다]] (사실 = Theme)

[_{NP} [_{N'} 사실 [_N 확인]]

한편,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집합 관계 명사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20) 집합 관계의 예들

가. 처소와 사건의 관계

교회의 종소리 / 교회 종소리,

한국의 영화 / 한국 영화

나. 소유주와 소유 대상의 관계

ㄱ.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어머니의 손 / 어머니 손, 인간의 두뇌 / 인간 두뇌

(신체 부분)

영희의 동생 / 영희 동생, 우리의 어머니 / 우리 어머니

(친족 관계)

학생의 문제 / 학생 문제

나. 양도할 수 있는 소유

철수의 그림 / 철수 그림, 외삼촌의 집 / 외삼촌 집

다. 전체와 부분 관계

중 고등학생의 절반 / 중 고등학생 절반

라. 수와 대상의 관계

한번의 실패 / 한번 실패, 다섯 잔의 술 / 다섯 잔 술

20가)의 예들은 사건을 전제로 하는 명사를 머리 명사로 갖는 예들로 이들 선행 명사는 후행하는 머리 명사가 전제로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처소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사건 명사들은 서술성 명사들과는 달리 명사 자신이 동사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활동의 결과물을 나타내면서 결과를 위한 과정 즉 일정한 사건을 전제로 한다. 20나)는 두 명사가 소유자와 소유 대상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소유 관계는 구체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소유와 양도할 수 없는 소유로 나눌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는 소유 관계에는 신체 부분과 친족 관계 등도 포함된다. 이때 신체 부분의 의미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다)는 전체와 부분의 의미 관계를 갖는 예인데 전체와 부분의 의미 관계를 갖는 명사구들의 경우 '-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0다)의 경우 명사구의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는 전체와 부분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급되는)중 고등학생의 수 =(전체의) 절반'과 같은 의미 관계도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절반의 중 고등학생' 등과 같이 명사의 자리 바꿈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20라)의 경우도 이런 면에서 20다)와 유사한 해석을 갖는다. 20다)의 예들에서 우리는 '실패 =두 번'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 명사구들의 경우도 일반적인 수사구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실패 두 번'의 구성이 가능하나 이때 이들 두 명사는 수식 관계를 나타낸다고보다는 동격 구문으로 서술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명사들이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구

를 형성할 경우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머리 명사로 하고 그것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 명사인 선행 명사로 하는 20라)와 같은 명사구 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21)의 명사구들은 ‘-의’를 동반하는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아래의 21)과 같이 서로 다른 구조로 도식화된다.

- 21) 가. 교회의 종소리 : [NP 교회의 [N' [N 종소리]]
 교회 종소리 : [NP ∅ [N' 교회 [N 종소리]]
 나. 어머니의 손 : [NP 어머니의 [N' [N 손]]
 어머니 손 : [NP ∅ [N' 어머니 [N 발표]]
 다. 고등학생의 절반 : [NP 고등학생의 [N' [N 절반]]
 고등학생 절반 : [NP ∅ [N' 고등학생 [N 절반]]
 라. 한번의 실패 : [NP 한 번의 [N' [N 실패]]
 한번 실패 : [NP ∅ [N' 한 번 [N 실패]]

4. 마무리

이제까지 우리는 속격 표지 ‘-의’ 개입 여부에 따라 명사구 구성을 분류하고 이들 명사구를 이루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간의 의미 관계와 통사 구조를 살펴 보았다.

서술 관계를 갖는 명사구들의 경우 선행 명사가 후행하는 서술 명사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역으로 해석되느냐 하는 것이나 그것들이 필수 성분이나 수의적 성분이나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와 통사적으로 얼마나 연결하여 있는가 하는 국부성의 조건에 의해 ‘-의’의 동반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사가 동일한 교점의 관할 하에 있을 때 즉 서술 구조에서는 V', 그리고 명사구 구조에

서는 N'에 의해 관할 될 때, 이들 명사구는 속격 표지 '-의'를 동반하지 않고 명사구 구성을 이루는 한편,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와 동일한 투사 범주에 관할되지 않고 후행 명사의 관할 교점의 밖에 위치할 때 속격 표지 '-의'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명사구 구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의미적으로 집합 관계를 형성하는 명사구들의 경우도 명사구의 구조에 있어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집합 관계 명사구들의 경우 서술 관계 명사구들에 비해 명사 간의 의미 관계는 더욱 다양하게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의'는 속격 표지로 명명될 만큼 명사간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로서의 기능이 대표적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논의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은 속격 표지 '-의'는 명사구와 명사구의 수식 관계를 입증하는 문법 형태소라는 것이다. 명사와 명사 간의 수식 관계가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확고한 경우 '-의'의 실현은 불필요하거나 수의적인 것이 되며 수식 관계가 비교적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명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이나 통사적인 연결성의 정도가 약할 경우 '-의'의 실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구들의 통사 구조에 대한 논의와 의미와 통사 구조 사이의 연계 과정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 기회를 빌어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광해(1981), {의}의 의미, 문법 연구 5.
 (1982), 복합 명사의 신생과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김기혁(1990), 관형 구성의 통어 현상과 의미 관계, 한글 209.
 김명희(1987), {의}의 의미 기능, 언어 12-2.

- 남기심, 조은(1993), 제한 소설 논항 구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 나무.
왕문용(1989), 명사 관형 구성에 대한 고찰, 주시경 학보 4.
이남순(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 표지 생략」, 탑출판사.
임홍빈(1981), 존재 전제와 속격 표지 {의}, 언어와 언어학 7.
최경봉(1995), 국어 명사 관형 구성의 의미 결합 관계에 대한 고찰, 국어학 26.
(1996), 명사 연결 구성의 해석 원리, 언어 21-4.

Baker(1988), M, *Incorporation :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rter, R.(1976), *Some Linking Regularities*, ms. reprinted(1988), *On Linking : papers by Carter*,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MIT, Cambridge, Mass.

Culicover & Wilkins(1984), *Locality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Jackendoff, R.(1983), *Semantics and Cognition*, MIT, cambridge, Mass.

Korster, J(1978), *Locality Principles in Syntax*, Dordrecht : Foris.

Langacker, R.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Stanford University.

Roeper, T. & E.A. Seigel(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Selkirk, E.O.(1982), *The Syntax of Words*, MIT, Cambridge, Mass.